

북한 개발 소식

05

2019 May

통권 163호

| 이달의 주제 |

중국, 러시아를 통해 본 북핵 문제와 선교적 전망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 개발소식

2019 May

CONTENTS

이달의 주제 :

중국, 러시아를 통해 본
북핵 문제와 선교적 전망



01

권두칼럼
중국, 러시아를 통해
본 북핵 문제와
선교적 전망

08

칼럼 1 · 박종수
최근 북핵 대화관련
러시아의 입장 및
대북 선교여건



15

칼럼 2 · 김종구
근래의 중국 기독교
박해와 그 영향



23

탈북민 수기 · 마리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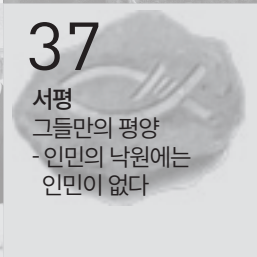
29

북한소식



37

서평
그들만의 평양
-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



39

지도제목



중국, 러시아를 통해 본 북핵 문제와 선교적 전망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19년 2월 27-28일 열린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방법론과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단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진 형국 속에 북한은 회담 장기화를 대비하여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형성에 힘을 쏟는 모양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제재 국면을 돌파하고 미국과의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당연한 움직임이다.

현재 북핵문제의 주요 당사자는 북한과 남한, 미국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역시 상당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국가의 중요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북중 및 북러관계의 변화는 선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상황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글에서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고,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도의 제목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북핵 문제 인식과 대북 정책

중국과 북한은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비록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2000년대 6자 회담에서 중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미국의 개입 명분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중국 안보에 불이익

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국간의 관계가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북중 관계는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였다. 북중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열리지 않았고,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서도 중국을 비판하는 사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종종 내비치곤 했다. 하지만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은 4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단기간에 관계를 회복하는 듯 보였다. 중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핵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즉 쌍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올 1월 8일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내외>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쌍중단의 경우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쌍궤병행,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비핵화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비핵화 문제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 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을 때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 중국이 중요한 당사자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전 협정’의 체약국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중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자체보다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와 그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존재,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이 더 주된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장애가 될 지는 중국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즉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지형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대목이 중국이 손익을 따지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중국은 공교롭게도

미국과 무역 분쟁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중미관계의 변화도 주시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중국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고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 완충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 안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대량 난민 사태도 중국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구호나 지원 문제, 치안의 문제, 인권의 문제 등 걸리는 부분이 많다. 현재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탈북자 처분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수백만 규모의 다수의 탈북자가 발생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중국이 앞으로 북한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대북 제재 중지 등 북한을 고려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먼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 2기가 추구하는 책임대국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결정했던 사안을 뒤집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게다가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시행국인 만큼, 미국과 북한 양측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카드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

실제 2018년도 북중무역 내역을 살펴볼 때 북한의 대중수출은 2017년 16.5억 달러에서 약 87% 감소한 2.2억달러로 급감했고, 수입 역시 2017년 33.3억 달러에서 약 33% 감소한 2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 비록 중국 해관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가 북중 관계 개선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다만 제재 외의 부분에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12년 1억 2천만달러, 중국의 대북수출액의 3.7%를 차지했던 중국의 대북 원조는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 아주 끊겼으나 2018년에는 5천 6백만 달러가 다시 지원되었다.²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재개된 중국의 지원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러시아의 북한 관련 입장과 행보

최근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 역시 미국의 영향력

1 정형곤, “2018년도 북중무역과 제재효과”,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3월호, pp. 81-85.

2 Ibid, p 84.

확대를 우려하고 한반도에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길 바라며 동북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아닌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리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위치이기도 하고 대량 난민 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에 비해 교류의 규모나 협력의 규모가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 과학원 한국연구국장인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는 38North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했다. 톨로라야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러시아가 당면한 여러 국제문제(우크라이나, 시리아, 중동, 나토 확장 등) 중 하나로서 상대적으로 사안의 시급성 등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톨로라야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핵과 미사일 등 무기들에 대한 생산 제한 및 군축, 그리고 확산 방지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규약이나 합의의 확대, 또는 반대로 군비경쟁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³ 즉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에는 반대하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보다는 이로 인한 국제 레짐의 변화 및 정치 지형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노동력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인다. 어떻게 해서든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수 만명의 질 좋은 노동력을 저렴하게, 또 환경이 열악하여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설 및 벌목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러시아 입장에서 가치 있는 제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러시아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유럽으로의 철도 운송 등이 가능해지면 그 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 직접 송유관과 가스관을 연결하고 판매, 공급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 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3 Georgy Tololaya, "Can a Russia-China Axis Help Find a Solution to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38 North (2017. 06. 8) 주소 <<https://www.38north.org/2017/06/gtoloraya060817/>>(검색일: 2019. 4. 19)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현상 유지를 위해 북한을 지원하고 대북제재 중단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러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박사는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관심을 가질만한 경제적 요소는 오직 노동력 뿐이라고 언급하며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이나 개인 방문객 등으로 위장해 입국 시킬수도 있다고 보았다.⁴ 다만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과의 교역량이 원체 크지 않을뿐더러 북한을 위해 그만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동기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선교적 전망

북한은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중요하다. 북한 선교를 위한 주요 통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선교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두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근황이 선교

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먼저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선교 사역에 민감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과 정신이 김정일의 유일 체제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체제전복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안정과 현상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선교사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 규제하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의 종교 정책도 선교 활동에 제약이 된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2기 이후 기독교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신앙 생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압박이 한층 거세어졌고 교회의 대외 활동 및 해외 기독교계와의 연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선족 교회에서는 한국 발행 성경 및 신앙서적 사용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선교활동은 당연히 금지 및 단속 대상이다. 중국 공민이 아닌 한국인을 비롯한 해외 국적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수백여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추방했다.

러시아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 활동

4 자유 아시아 방송, “북러가 서로 원하는 것은 ‘북한 노동자’”, 2019.03.28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국교인 정교회 외의 타 개신교의 활동에 대해서 정해진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일명 야로보이법)은 러시아 개신교인과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개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밖에서의 종교활동은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신교인과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체포와 벌금, 재산몰수까지 가능해 ‘신(新)종교법’ 또는 ‘반(反)선교법’으로도 불린다.⁵ 종교 비자를 받고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나 활동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 오롤(Oryol) 주에서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침례교 목사인 도날드 오세왈드(Donald Ossewaarde)와 그의 아내 루스(Ruth). 오세왈드 목사는 집에서 종교적인 예배를 가질 뿐 아니라 근처 마을에 예배에 관한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체포됐고, 4만 루블(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donossewaarde.com)>

교회 밖에서의 선교 활동이나 북한 노동자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은 적발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릴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대북 제재에 대한 감시를 피하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또 북한 당국 역시 대북 제재 극복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친척 방문 등을 목적으로 북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북한 노동자 수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창의적인 접근법과 사역법에 대한 고민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앞으로의 북한 경제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회담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를 미루어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북한이 바라는 수준의 지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재 해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제재 해제에 대한 목소리는 내겠지만 당장은 실제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5 국민일보, “러시아 ‘신종교법’으로 개신교도 핍박”, 2017.05.04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미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깰 정치적 동기나 의지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의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러한 경제 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활의 곤란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악화되는 경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돌파구는 무엇일지 현재로서는 확답하기 어렵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간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예상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가 앞서가야 한다. 특별히 실제 현장에서 이름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겠다(약 1:5)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창의적 선교 자원 개발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가 충만하도록 구하자.

근본적으로는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과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기도하자.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이 선교 사역에 긍정



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경륜으로 북한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마 6:10)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는다. 

최근 북핵 대화관련 러시아의 입장 및 대북 선교여건

박종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전 주러공사)

북한을 두둔하는 러시아의 속내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최섉희 북한 외교부 부상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지나친 기대를 배제한 단계적 상호 양보원칙에 기초한 북미간 대화 지속을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2003년 북핵 6자회담 출범 직전에 러시아 수석대표인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북한 측의 요구를 반영한 일괄타결안을 제시했다.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고 한국과 중국은 침묵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2005년 9

월 동결시킨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김정일 비자금 반환문제가 대두되자,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국 은행을 통해 예치금 전액을 북한 측에 넘겨주었다.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6자회담국 중 유일하게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는 유엔의 대북 규탄성명서 채택에 불참했다. 오히려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전격 제안해 서해의 한미합동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2012년 3월 북한의 대러 채무 100억 달러를 탕감기로 합의하고 2014년 4월 하원의 비준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반대급부로 북한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등 군사협력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2월 러시아 정보기관 출신 10여 명이 평양에 파견돼 트럼프의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비한 신변경호

교육을 전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9월 1일 발표한 언론기고문에서 “평양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제조건 없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2018년 6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로켓맨’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서로 비난했다. 두 정상 간 극한 설전이 오가면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감돌았다. 이러한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核) 외교전의 승리자, 대화로 해결할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격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의 미국패권 견제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계기 때마다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은 이에 화답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러시아의 대(對)남북한 정책을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對)남북한 정책

러북관계는 1990년대 한리 수교 및 소련 해체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몇 년 뒤 러시아는 남한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득이 북한홀대로 인한 손실에

비해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0년 6월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 발표에서 대(對)한반도 정책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했다. 즉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남북한과의 등거리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로서는 러북 신(新)우호 조약을 토대로 북한과는 정치·안보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도 다차원적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한 달 뒤 푸틴은 러시아(소련포함)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다. 한소 수교로 얼어붙었던 러북 관계는 한순간에 해빙기를 맞았다. 김정일은 답방 일환으로 2001년과 2002년 연속 두 차례나 러시아를 방문했고, 2001년에는 거의 1개월간 특별 열차로 러시아 전역을 누볐다.

푸틴 행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러시아의 대



<2002년 8월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옹하는 장면. (연합뉴스)>

(對)남북한정책 기조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일관된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즉 남북한 당사자 주도, 포괄적 일괄타결, 한반도 평화문제와 비핵화 프로세스 분리추진, 비핵화 6자회담틀 유지,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틀 제도화 등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고 할 것이다. 왜?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다중적 입장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러시아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핵시설과 기술을 공여한 장본국으로서, 그리고 NPT체제 관리국으로서 북한의 핵무력화를 방임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으로서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연해주 일대의 핵오염을 우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첫째, 북핵 공여국의 입장이다. 항일 빨치산 대장 출신인 김일성은 일본 본토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에 경악했고 정권출범 때부터 핵개발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핵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46년 김일성대학에 물리수학부를 개설했다. 도상록·리승기·한인석 등 북핵 1세대 3인방이

이어 정근·최학근·서상국 등 2세대 3인방이 소련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했다. 1990년 소북 과학협력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련의 도움으로 배출된 북한의 핵인력은 250여 명에 이른다. 1956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협정’ 체결 후 지원이 본격화됐고, 1980년대 영변에만 핵개발관련 직·간접 시설 100개가 건립됐다.

물론 소련은 핵탄두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 해체의 혼란기를 틈타 핵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물질뿐 아니라 기술자까지 평양으로 데려간 정황이 도처에서 발견됐다. 1992년 12월 러시아 첼랴빈스크의 마케예프 설계국 소속 미사일 전문가 20명을 방북시키려다 공항에서 저지당했다. 1994년 6월 러시아 국내방첩부(FSB) 부장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용 부품들을 밀수하려 해서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1999년 3월 소련권으로부터 중고 미그21기 40대를 해체해서 평양으로 불법 반입해간 사실도 뒤늦게 포착됐다.

둘째, 북핵 관리국의 입장이다. 소련은 1970년대 미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출범시켰다. 1990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KGB 보고서에서 “북한의 첫 핵무기가 영변의 핵연구센터에서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KGB 후신인 해외정보부(SVR) 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무장화



〈2016년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지도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렇지만 러시아 측의 이러한 주장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4자회담에서 조차 배제됐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대만·한국·일본 등 잠재적 준(準)핵국가의 연쇄 핵무장 촉발을 우려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한반도 구축과 일본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러시아가 최다 핵탄두 보유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국제관계 행위자임은 자타가 공인한 바이다.

셋째, 북핵 피해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북핵시설 폭격 때 극동일대는 심각한 방사능 낙진 위험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체제 위기 시에 탈북 난민의 극동지역 유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국가 발전 대전략으로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과 시베리아 극동개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크라이나·시리아 내전 개입과 함께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는

전략적 부담도 가중된다. 체첸 전쟁 이후 나 죽고 너 죽자는 자폭테러의 현장을 무수히 경험한 러시아다. 자폭테러는 죽어가면서도 독침을 내뿜는 전갈과 같다. 북한과 같은 소규모 핵무장 국가가 위기상황에서 핵무기를 더 쉽게 사용할 유혹을 느낄 수 있음을 우려한다.

넷째, 러북 양국은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국이다.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감내해 왔다. 러시아도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루블화 폭락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설계자·이행자이면서 제재 대상국이라는 상반된 입장에 처한 셈이다. 제재를 당한 입장에서 푸틴과 김정은은 동병상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러북간 신밀월관계 구축

러북간 밀착관계는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직후부터 시작됐다. 그 해 4월 28-30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은 집권 후 평양을 찾은 최고위급 러시아 인사였다. 그는 북한 노동철 부총리와 경제·철도·운수 분야의 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고 대북 식량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러간 거래를 루블화로만 결제하고 북한의 대(對)러시아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다. 루블화 결제는 미국 주도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응하고 북한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다. 그리고 트루트네프의 방북 직전인 4월 19일 러시아 하원은 대북 채권 109억 6천만 달러(약 11조 3,797억원) 중 90%를 탕감하고 10억9천만 달러(약 1조 1,379억원)를 북한 영토내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협정에 비준했다. 수십 년간 끌어오면서 양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대러 채무 상환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러북 관계는 순풍에 돛을 달기 시작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7년 8월 광복 72주년을 맞아金正은과 푸틴이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간 친선 강화를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측과 축전을 교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방송은 각국



〈2016년 '다보스포럼'에 푸틴 대통령의 특사로 참석한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지도자의 신년 연하장 접수사실에 대해서도 연속 4년간 러시아를 가장 먼저 호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2월에도 시진핑을 패상하고金正은의 푸틴 앞 연하장 발송 사실에 대해서만 보도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러시아는 1주일 전에 통보받고 북-러 국경 인근의 하산 마을주민 1500여 명을 대피시켰다. 수소폭탄 실험장소인 풍계리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중국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시진핑은 BRICs 개최국 수장으로서 개막식 당일에 예고 없이 실시한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북중 관계의 시초는 중국공산당의 국공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이 6.25때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북한 구하기'에 나섰던 것은 김일성이 국공내전 때 모택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데 대한 보답이었다는 인식이다. 그 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한국전 지원사실을 공식문서에서 삭제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양국관계가 양호했던 시기는 대략 1961~1964년, 1970~1973년 정도였다. 혈맹이라고 하지만 정례적인 합동훈련조차 없었다. 중국의 엘리트 그룹은 '북한에 끌려 다닌 북중 관계 60년이요, 허울 좋은 혈맹일 뿐'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주평 남경대 교수는 북한이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어뜯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혹평했다.

金正은은 작년부터 4차례나 집중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번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때도 전용열차를 이용해 중국영토를 통과했다. 이렇듯 몸은 비록 중국에 있을 지라도 마음은 미국을 향해 왔다. 미국은 과거에는 타도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협력해야 할 파트너 1호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오월동주(吳越同舟)식 북미동주(北美同舟)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는 1990년대 한소수교 및 소련 해체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북핵 정국에서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가 2014년 나진항 3호 부두의 49년 사용권을 확보하고 러시아 해군의 나진항 주둔을 조울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소리방송(2014.6.6)은 경제협력회의 문건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러시아 보조함대를 항구에 주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나진항에 주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냉전당시 소련 해군의 유일한 동남아 거점은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베트남 캄란만이었다. 1989년 12월 소련은 캄란만 해군기지에 배치된 미그-23기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2012년 8월 쯔잉편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100억 달러 차관을 제공받는 대가로 캄란만에 러시아 선박수리 기지를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러시아측은 공군기지 신설 및 2020년까지 신형 항공



〈나진항 3호 부두에서 선적 중인 컨테이너 화물. (연합뉴스)〉

모함의 기항지로 캄란만을 활용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베트남이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소련 시절의 전략 거점을 확보하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셈이다. 1984년 소련 당시의 블라디보스토크-나진-캄란만을 잇는 군사벨트가 재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은 소련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일체를 지원해서 탄생한 나라다. 러북 간 국경선 39.1km는 머리(러시아)와 몸통(북한)을 연결하는 목 부위에 해당한다. 머리의 지령없이 몸통은 움직이지 않는다. 목을 조이면 몸통은 한 순간에 주검으로 변한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역사적·지정학적 관계와 구도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북핵문제와는 무관하게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정세가 평화무드로 접어들면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로 향한 창’으로 삼아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동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한-러시아간 철도·가스관·전력망 연결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시화될 수 있다. 설령 북핵문제 미해결로 현재의 긴장상황이 지속된다해도 러시아와 북한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협력 관행을 유지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전경〉

선교의 ‘북루오션’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천명하고 나인 브릿지(9개 다리) 프로젝트를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동방정책과 만난다.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면서 북방지역이 북한 땅에 가려서 잘 안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북방 정책은 북한 변수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행여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에 북방변수는 대안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변수와 북방변수 간 선순환적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20-30대의 젊은층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한 러시행렬을 주도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의 80%가 한국인이고, 그 중에 80%는 20-30대 청년층이다. 시내 중심부 아르바트 거리는 밤늦게 까지 한국 젊은이들로 북적거린다. 서울의 명동거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가게마다 레스토랑마다 한글 메뉴판이 비치되어 있다. ‘블라도(道)’라는 별명까지 얻은 블라디보스토크는 행정상으로 강원도 북쪽에 새로 추가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선교활동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출(出)중국해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러시아정교회의 영향이 절대적인 러시아에서도 선교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중국에 비해 양호하지만, 러시아 정교회와 갈등을 야기할 상황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립외교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수히닌 전(前) 주북대사가 “한국 선교사들이 물질로 러시아인들의 영혼을 매수하려고 한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항상 유념해야 한다. 🐟

근래의 중국 기독교 박해와 그 영향

김 종 구(빌리온 선교회)

글을 시작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은 2017년 9월 8일 이극강(李克強, 리커창) 총리 이름으로 반포한 ‘신종교사무조례(이후 신조례)’를 2018년 2월 1일 시행을 예고하였다. 실제로 2018년 2월 1일 되자-실은 그 전부터- 시행되는 소식이 들렸다. 조례의 시행은 곧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핍박이나 극도의 간섭으로 이어졌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범위는 중국 전체지역으로 동시다발적이었고, 그 강도는 제2의 ‘문화

대혁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높게 진행되었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공인을 받고 공개된 삼자교회, 정부의 공인 없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지식층 중심의 신흥도시가정 교회를 막론하고 ‘신조례’의 적용대상이었다. 한편 중국 선교를 위해 그 땅에 체류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도 이 ‘신조례’는 폭풍 같이 몰아쳐 많은 이들이 선교지인 중국을 떠나야 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신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연구 발표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다루지 않을 것이다.¹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입장과 ‘신조례’를 반포한 목적을 주로 살펴보고, ‘신조례’ 시행이 가져온 중국교회의 박해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박해에 대한 중국교회의 대응과 중국교회가 내·외적으로 받은 영향들에 대하여 논하게 된다.

이 글은 기존에 국내외적으로 발표되거나 공개된 자료와 이 문제를 주제로 열렸던 포럼 등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사용할 것이다.

I. 중화인민공화국과 종교, 기독교

1. 중국의 종교에 대한 입장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헌법 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기와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이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허용한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종교 자유는 많은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헌법 제36조에 신앙 행동에 대한 제약이 포함된 법률 규정이 있다. 즉,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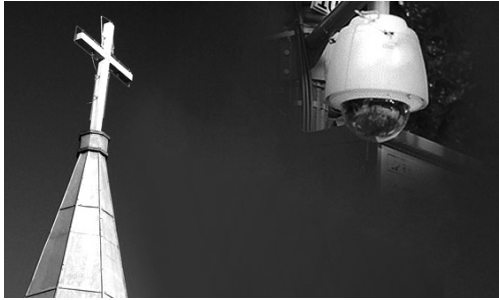
자신이 믿는 신앙을 전하는 일에 대한 금지, 교회나 종교기관이 외국 종교기관과의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 신앙을 교육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 같은 신앙인들끼리의 예배와 기도회 등의 종교집회에 대한 규제, 18세 이하의 중국 국민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 공산당원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 등이 부지기수이다.

사회주의에서 종교는 통일전선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종교든 간에 국가의 통일전선 전략에 부합되어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 중국 국민들은 제한된 신앙의 자유, 정부의 통제 하에서 통일전선 전략에 부합된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을 뿐이다. ‘신조례’는 공산당 정부의 통제와 관리, 처벌의 법적 근거를 제정한 것이고 향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 공산당 정부의 요구

‘신조례’를 시행하면서 공산당 정부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요구는 삼자 가입일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는 불법 단체이며 모임도 불법 모임이라는 공지(公知)를 계속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교회 성도들의 생활 공간에 압력을 가하여 가정교회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1 중국의 신(新)종교사무조례에 대한 내용은 북한개발소식 18년 9월호 내 “중국교회 이해를 위한 ‘(新)종교사무조례’의 고찰 (김종구 선교사)” 참조.



아울러서 교회당과 같은 종교시설물에 대하여서는 감시목적의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상부와 관련 기관에 여러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국기 게양, 성도들의 예배 등 모임마다 국가(國歌) 부르기, 신종교사무조례 학습하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내용을 교회 벽보에 붙이기, 심한 경우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과 습근평(習近平, 시진핑)의 사진을 예배당 전면에 거는 일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적극적 의미에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비록 해외에서 일지라고 종교학습이나 신앙 훈련을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조례’의 시행에 대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하여 계속적으로 공지하므로 성도들에게 중압감을 주며 가정교회에서의 이탈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II. 신종교사무조례와 기독교 박해

1. 주요 박해의 대상인 교회나 개인

중국교회의 한 지도자는 중국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²

첫째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고 널리 알려진 교회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되는 교회, 둘째는 해외 단체나 선교사들과 빈번한 왕래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사역이나 모임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개인, 셋째는 교회 사역의 자체 규모가 크고 재정 사용이 큰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되고 있는 교회, 넷째로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정치적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 등이 신조례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 순위의 목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하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내용은 북경 시온(錫安)교회의 폐쇄와 김명일 목사의 출국 제한, ‘신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예배당건물의 폐쇄와 집회금지 등을 당한 수망(守望)교회와 김천명 목사, 그리고 사천성 성도(成都)의 왕이(王怡) 목사 체포와 추우(秋雨)교회의 폐쇄와 성도들 구금 등이다.

2 2018년 12월 3일 한국위기관리재단 설립 8주년 기념 포럼에서 현지인 B목사가 발제한 내용

산서(山西)성의 임분(臨汾)의 금등당(金燈堂) 교회 등은 위에서 중국인 지도자가 언급한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이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2. 기독교 박해의 양상

신조례 시행과 관련되어 물리적인 조치를 당한 교회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요한 몇 개의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핍박과 압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례가 공식 시행되기 전 1월에 산서성 임분시에서 가정교회가 공권력에 의해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다.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山西)성 임분(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개신교 가정교회 김등당(金燈堂)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 철거됐다.

둘째, 하남(河南)성 전역에서 교회 4,000여 곳의 교회십자가가 최근 무더기로 철거됐다. 남양(南陽)에서는 새벽 6시경에 공안 등이 교회 4곳에 들이닥쳐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당 집기를 모두 압수해 갔고, 항의하던 신자들은 공안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

셋째, 북경의 시온(錫安)교회가 폐쇄당하였다. 2018년 9월 9일 오후 베이징 시온 교회에 60여명의 관리들이 들이닥쳐 집기



〈중국 하남성(허난성)에서 최근 대대적인 교회 십자가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 종교 당국은 교회 안에 국기 게양(오른쪽), 시진핑 국가주석 초상 게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겨레, 명보 인용)〉

등을 몰수하고 본당과 분당을 모두 폐쇄한 뒤 교회 간판도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회 건물을 에워싸 출입을 차단했으며 버스와 경찰차, 구급차, 트럭 등 차량 20~30대가 건물 주변에 배치하면서 교회를 폐쇄했다.

넷째, 2018년 12월 9일 사천성 공안 당국이 성도(成都)의 추우(秋雨)교회를 폐쇄하고 목사와 성도 100여명을 체포하였다. 공안은 성도들의 집을 급습해 이들을 끌고 가거나 시내 곳곳의 거리에서 성도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일부 성도들은 ‘앞으로 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다.

다섯째, 공산당 정부의 탄압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형교회뿐 아니다. 그리 크지 않는 규모의 교회도 압박을 가하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천진(天津)

시의 가정교회 여러 군데가 폐쇄되었고, 2018년 3월 20일 조선족 목회자 모임에 참석한 조선족 교회 책임자 18명이 공안국에서 조사 받고, 자격심사를 통하여 전도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설교자격을 박탈하는 일도 있었다.

여섯째,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팔고 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모든 영업활동을 금하고 있다. 교회 내 감시 카메라용으로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방문을 하거나 책임자가 매일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곱째, 종교-신앙 신고함 설치와 전화망을 구축하여 신앙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몇몇 성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종교-신앙 활동들을 고발하게 하는 ‘종교-신앙 불법활동 신고함’이나 전화를 통한 ‘종교-신앙 불법활동 신고 전화망’을 라인 전화망, 신고시 장려금 지급 하는 제도³⁾를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다.

III. 신종교 사무조례 시행으로 중국교회가 받은 영향

1. 부정적 영향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비상식적 법집행 등으로 인해 성도들이 겪는 최고의 어려움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심한 경우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불신과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일상의 삶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일도 있다.

교회생활로 본다면 정부의 간섭과 협박 등이 주는 불편함이나 공포가 교인 수를 감소하게 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일 것이다. 공산당 정부의 강력한 기독교 탄압 정책을 통해 가정교회를 폐쇄하고 집회를 못하게 한다면 교회 수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성경공부와 신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3 a. 파룬궁 신도가 공공장소에서 가르침을 퍼거나 설교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고 확인이 되면 신고자는 2백 ~ 1천 위안(약 3만3천 원 ~ 17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종교 전단지를 만들거나 나눠주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은 5백 ~ 2천 위안(약 8만4천 원 ~ 33만5천 원)으로 된다. 신고 내용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5천 ~ 1만 위안(84만 ~ 168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전능신교 신자를 신고하면 보상이 보통은 1백 ~ 2천 위안(1만7천 ~ 33만5천 원)이지만 최고액은 3천 위안(50만 원)에 이른다.(Bitter Winter, 4월 19일)
b. 광저우(廣州)시 관계 당국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하도록 독려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광둥(廣東)성 경찰에 ‘불법 종교 단체나 회원’을 제보한 대가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최대 1만 위안(약 169만 원)이다. ‘불법 종교활동 신고 장려책’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광저우 지방정부 소속 기관인 국가민족종교위원회가 3월 20일 발표하고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는 자는 포상금 1000~3000위안(약 16만~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해외에 적을 둔 ‘불법 종교단체나 회원’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는 3000~5000위안(약 50만~84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외 ‘불법 종교단체’ 핵심 인물의 확실한 위치를 제보하는 자는 5000~1만 위안(약 84만~169만 원)을 받는다.(EPOCH TIMES, 2019.04.14.)



〈중국 저장성 무양마을에서 십자가를 철거중인 근로자 (조선닷컴)〉

진행하지 못할 경우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도 생각할 수 있으며, 성도간의 교제도 원만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와의 교류나 연합활동 등이 차단되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주는 유익들이 감소할 것이다. 삼자정책에 의거하여 해외 단체나 기관과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일-교육, 훈련, 학문연구, 선교-을 금하고 있어서 중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와 단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세계선교 사역이 한걸음 늦추어 질 가능성이 있다.

교회 정문 앞에 팻말을 세워놓고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대학생과 군인, 당원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이나 캠퍼스 사역 등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대하기는 중국교회가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아래 놓여있을 지라도 내적인 신앙의 실력과 겸손함과 인내로 잘 감당 해 나아갈

것을 바라는 것이다.

2. 긍정적 영향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산당 정부의 전면적인 압박이 교회에 주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다.

첫째, 박해 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게 하였다. 건물로서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기울었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요, 지체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로 변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 십억을 드려서 지은 건물이 공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현장에서 중국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어느 성에서 만난 중국교회의 탑 리더인 D 목사는 이런 핍박의 이유를 독백하듯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생각 하기는 주님이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성경과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교회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대규모와 조직과 형식을 추구하며 세속주의에 빠져가고 있을 때, 핍박을 만난 중국교회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다시금 열방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도 모 지역에서 선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훈련원 개강식에서 개회사를 하던 단체의 대표인 C목사는 이런 선포를 하였다.

중국교회는 이제 성결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외형적인 사역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공동체로서의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단순한 회중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공유하고 세상으로 보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형모임을 금지당하고, 모임 장소인 건물이 폐쇄당하며 부득불 소그룹으로 모이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가정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훈련과 나눔이 있고, 섬김의 삶이 있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은 고난 중의 축복일 것이다.

셋째, 세계선교를 감당해야 할 중국교회가

“나는 오늘 오전에도 종교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같이 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외국인을 만나지 말고, 해외 출국을 하지 말고, 타지에 출타 시에 목적지와 무슨 이유로 가는지를 보고하고 가라는 등의 요구입니다.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공간은 그들의 요구대로 불법 집회 장소이기 때문에 폐쇄하라고 하여 폐쇄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건물이 폐쇄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본질을 망각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는 C목사의 이 고백 같은 선포를 들으며 중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가정교회의 실체가 공개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를 2,500만 명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그보다 몇 배 더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가정교회에 속한 성도의 수를 언급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힘들지만 과정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공개되고 그 실체가 공식적으로 언급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삼자교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문화대혁명’과 같은 혹독한 시련이 있는 중에도 중국교회와 성도들은 죽지 않았다. 공산당과 홍위병들이 그렇게 바라던 기독교의 소멸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흥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실력이 키워지는 기간이 되고 있었다. 필자가 만난 노인은 ‘문화대혁명’을 지나면서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99% 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몇 년 전까지도 교회를 지키며 후손들에게 기독교신앙의 산증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신종교사무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엄청난 시련이 닥친 것은 사실이다. 불합리하게 압박을 받고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당하는 교사들도 있고, 공산당원의 기득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하는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는 중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2)

●
마리아

돌격대를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위장병으로 제대하기는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몸이 많이 아팠다. 한 1년 정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꿈쩍없이 집에서 쉬면서 질병 치료와 건강 회복에 힘쓰는 수밖에 없었다. 하필 돌격대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은 조금씩 생활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배급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90년대 중반 대기근만 떠올리지만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고 배급도 줄어들었다. 우리 집은 죽과 밥을 그런대로 해먹고

살았지만 넉넉하지는 못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야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법랑¹ 철기 만드는 곳이었다. 작업장으로 철판이 배송되면 그것에 모양을 찍어서 그릇을 만들고 사기물을 먹여서 덮어 씌우는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다시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장이 안에 끓었다고 했다. 그 이후 1년에 1번씩 2번의 수술을 했다. 다행히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 사정이 괜찮아서 입원하면 약도 나오고 의료

1 금속 표면에 유리질 유약을 발라 구워 금속을 덮어씌운 것의 총칭.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길어지는 병치레에 나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힘들어했다. 나는 복수가 차오르는 배를 움켜쥐며 힘겨운 병원생활을 이어갔다.

내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돌격대에 있었던 시간 외에는 즐거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특히 건강 악화로 고생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 돌격대 때는 일은 힘들었지만 청춘을 청춘답게 누리던 보람있던 시간이었다. 청년들끼리 모인 집단이라 항상 활기찼고 생기가 넘쳤다. 또 고된 작업 속에서도 각종 건축물과 구조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때의 힘든 노동이 안 그래도 강골이 못되었던 나의 건강을 크게 갉아먹은 것도 부인할 수 없으니 나로서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 둘째 오빠는 일찍 제대했다. 듣기로는 휴전선 인근 부대에 근무하던 중에 소대장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부대에서 우리 오빠가 혹시 충동적으로라도 남한으로 도망갈까봐 우려해서 일찍 제대시켰다고 한다. 김일성이 죽은 다음 해에 오빠는 결혼을 했다. 나도 오빠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만났다. 새언니가 중매를 서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물이 번듯하고 풍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시골 출신이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다. 나는 성격이 강한 편이라 그런지 착한 그 사람의 성격이 끌렸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강하게 반대하셨다. 집에서 귀하게 키우던 막내딸과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인물도 변변치 않고 게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꿈쩍없이 시골로 들어가서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장마당을 떠도는 꽃제비들(99년 1월 KBS 일요스페셜 방영)〉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 되어야 할 결혼이었지만 우리는 신혼의 즐거움을 누릴 세도 없이 온 나라를 강타한 최악의 경제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 기근이 강타했고, 하필 식량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결혼을 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신혼살림을 차리자마자 굶기 시작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을 생각하면 그 때를 못넘기고 죽은 가족들이 먼저 생각난다. 오빠는 결혼하고 곧 아기를 가졌다. 그러나 조카는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건강이 안좋아진 새 언니가 제대로 모유를 먹이지 못했고, 먹을 것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모유를 대체해서 먹일만한 마땅한 대체제를 찾을 수 없었다. 아이는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지 못했다. 뭐라도 먹여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밀가루를 구해 유수가(사카린)를 섞어서 물에 풀어 먹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공급이 될 리가 없었다. 결국 조카는 태어난 지 6개월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나도 어려운 시기에 아들을 출산했다. 임신은 되었지만 자주 굶다보니 모유가 부족해서 아기를 기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굶으면서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보니 나의 얼굴이 살이 쏙 빠져서 해골처럼 되었다. 동네사람들은 길에서 나를 볼 때마다 ‘새댁은 결혼 올 때는 예뻐했는데 지금은 형체 없네...’하며 안타까워하셨다.

아버지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2-3년 뒤 여름 경에 굶주림으로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 경제 붕괴로 모든 통신이 끊기고 운송수단이 마비된 터라 아버지의 소식을 제때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직접 찾아가기는커녕 전기가 없어서 전보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고향 동네를 다른 일 때문에 우연히 찾아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식으로서 말로 못할 불효를 저지른 셈이다.

아버지는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붕괴한 마당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혜택 따위는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주머니에 옥수수 10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하셨다. 옥수수 10알... 차마 입에 털어 넣지 못한 그 옥수수는 어디서 주우신 것이었을까? 전장의 포화는 이겨냈지만 기근까지는 마저 극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떤 심경이셨을까...

집에 먹을 것은 없지만 키우는 돼지는 있었다. 암돼지였다. 물론 돼지 먹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이 다 자는 새벽에 인분을 도둑질해서 끓여서 돼지를 줬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거라도 어렵게 구해서 이 돼지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에 몰두할 뿐이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도 굶는 판국에 돼지를 기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할 것이다. 당장의 상황만 보면 이 녀석이라도 빨리 잡아먹어야 할 일이었지만 이 돼지야 말로 나중에 우리의 많은 끼니를 책임질 방편이었다. 키워서 팔면 더 많은 식량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녀석은 임신을 했기에 새끼를 잘 나아서 팔면 돈이 되고 우리의 생계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악착같이, 남의 집 인분까지 몰래 퍼다가 먹이고 길렀다.

식량 부족은 굶주림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보건 위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도 고열에 설사를 동반한 장티푸스가 돌기 시작했다. 그 질병의 마수가 하필 우리 남편에까지 미쳤다. 남편은 장티푸스를 앓는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약은 당연히 한 알도 못썼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장티푸스에 걸려 고열로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끓여서 밥을 차렸다. 그렇지만 남편은 속이 좋지 않은지 밥을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밥은 환자가 입 댄 것이라 전염의 위험이 있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었다. 남편은 그 밥을 돼지 주라고 하는데 내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갔다. ‘저



아까운 것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마저 병에 걸리면 우리 가족은 꿈쩍없이 죽은
목숨이다. 결국 그 귀한 밥은 돼지의 몫이 되었다.

당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산에다가 밭을
일구겠다고 나가 있었고 나는 남편과 아기와
함께 지냈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 사방
으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우연히 늙은
호박을 찾았다. 이 호박을 삶고 끓여 먹으며 한
동안 허기를 달랬다. 한겨울의 추위도 문제였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애기를 등에 업고 땔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산에 갈 여력은 없으니 길 가에
나뭇가지 떨어진 것을 찾아다녔다. 그렇지만
워낙 땔감이 귀하다 보니 충분한 양의 나뭇
가지를 주워오기란 매우 어려웠다. 나중에는
빨래 방망이까지 불 때는데 썼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고난을 잘 이겨내었다.
다행히 남편은 병을 털고 일어났다. 아이도 그
어려운 중에도 무사히 돌을 넘겼다. 친정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기 돌을 축하해 주셨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돌을 맞아 오셨다가

장티푸스에 걸리시고 몸져 누우셨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막 돌을 지난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시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소나무 팥술 같은 걸로 불을 켜고 불씨를
지켰다. 하루는 아이가 부엌에서 놀다가 부엌에
불씨가 꺼진 것을 보고 불 꺼졌다고 엄마한테
오다가 그만 가마솥에 손이 들어갔다. 아이는 큰
화상을 입었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아파하는
들쳐 매고 병원을 찾아갔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집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차로 30-4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였다. 그러나 물자 부족으로
인한 차량 운행 중단으로 그 병원은 걸어서
5시간 걸리는 길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애기는 가쁘게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의사가 진료를 하려고 했지만
그땐 이미 고개가 푹 꺾이고 말았다. 그것이
아기의 마지막이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업고 오는데 너무나 원통
했다. 주사 하나도 못 맞히고 치료 시도도 해보지
못했다. 자동차라도 다녔으면 이 아이가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깟 차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해서 아들을 잃은 꼴이 너무 비참했다. 엄마
로써 아기의 마지막 걸음을 함께하고 싶어서
끝까지 아이를 업고, 가로등도 없는 그 밤길을
걸어오면서, 내 마음은 억울함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아이가 곁에 있던 1년 남짓 동안 사탕
한번 제대로 먹여보지 못했고 젖 한번 배부르게
먹이지 못했다. 이 험한 시기에 못난 부모를 만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 되었다. 남편 친구와 시누이 남편이 아이를 물어주었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다. 남편이 장손인지라 우리 아기가 장손주인데, 어미가 부주의해서 장손주 되는 아이를 죽였다고 역정을 내시고 나를 내쫓으셨다. 그런 중에 남편은 평평 우는 내 손을 붙잡고 넌지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우리 아기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먼저 간지도 모르겠구려. 어른이 굶는데 아이는 어떻게 먹이겠는가 아무 대책도 없고… 이 험한 꼴을 아이가 어찌 살겠는가? 우리 아이가 부모 고생 안시키려고 먼저 간 것 같소.”

나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남편도 남 보지 않을 때 죽을 것 같이 울었다. 씩씩하고 내색하지 않던 남편이었지만 그때만은 앞이 안보인다 세상이 안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남편의 눈물처럼, 정말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우리는 배급 없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사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 경험이 쌓였다. 고난의 행군 초반에는 많이 굶었지만 나중에는 산에 뽕나무를 일궈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 년 먹을 양식 정도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었고, 그걸로 쪼개 먹으면서 버텼다. 물론 산에다 일군 밭은 엄연히 불법이었지만 그런건 이미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겠는가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장마당도 종종 이용했다. 산나물 캐서 새벽에 걸어서 읍내에 나가서 장사하고, 먹을것을 사서 밤 늦게 집에 오곤 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보니 자주 나가지는 못했다.

가족에도 경사가 있었다. 첫 아이가 죽고 2년이 지나 다시 아이를 가진 것이다. 먼저 딸을 낳았고, 뒤이어 아들을 하나 더 출산했다. 그때는 해산할 준비도 미리 잘하고, 그런대로 죽도 먹이고 밥도 먹일 수 있었다. 물론 없는 살림에 아이 둘을 키우기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도 간식거리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암록강변에서 본 한 북한의 농촌마을. 산꼭대기까지 밭이 일구어져 있다.>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2년 남짓 만에 잃었다. 조카, 아빠, 아들까지 앓아갔다. 그런데 북한 안에서는 이런 서러움을 곱씹을 세가 없었다. 마음이 아플 겨를이 없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단 한번도 과거를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없었다. 일단 지금 살아있는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 일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치였다. 나중에 한국 와서야 그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슬픈 일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지 몰랐다. 다시 슬픔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한미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재개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단독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 등 총 116분에 걸쳐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독회담 모두발언에 이어진 기자단과의 문답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단계를 밟아야 한다"면서도 "(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회담의 필요성에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음을 내비쳤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의 관건으로 언급되어온 비핵화 방법론이나 대북 제재를 두고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은 '빅딜'로 불리는 일괄타결 방식을,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이렇듯 참여하게 대립하는 북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는 회담 전 북미 간에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 충분히 괜찮은 거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결합)', '조기 추수론(실질적 비핵화 달성 시 한두 번의 당근 제시)'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딜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쪼개서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현 수준의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남북회담 추진 공식화... '구체적·실질적' 核 중재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남북대화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뚜렷한 간극을 표출하고 있는 북미양국 사이에서 남북대화를 '마중물' 삼아 다시금 핵(核)중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월 15일 서울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대화를 지속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도 남북 공동선언을 시행할 의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1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의 신뢰를 토대 삼은 ‘톱다운’ 방식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4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에 중요한 내용과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 김정은, 최고 인민회의에서 시정 연설… 북핵 관련 공식적 입장 드러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조선중앙통신은 4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2일차 회의에 참석해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임을 처음으로 직접 대내외에 알린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미국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도 재확인한 것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가상한 시험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움직임 등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화답한 제스처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놔다. 그는 “(남측이)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중재자’ 역할에 대해 일종의 ‘거부감’을 표현했다.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노선을 이어가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기강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장기화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부패와의 전쟁’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앞서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평양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예고한 북한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정은 위원장, 조직개편…'포스트 하노이' 체제 구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노동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새로 선출된 당 및 국가지도기관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다. 이는 '김정은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했다는 의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다시 이끌게 된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상위 권력기구다.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 지도와 주요 간부 임·해임, 국가비상사태·동원령 선포, 국가 정책 수립·집행 등이 모두 여기서 결정된다.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다. 최 부위원장은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도 선임되면서 사실상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 실세로 평가받았던 최 부

위원장이 김 국무위원장 다음인 제1부위원장을 맡으면서 향후 북한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실상부한 2인자로 공식화된 그의 위상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비핵화 협상을 총괄지휘해 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거친 화법 때문에 그를 불편해하던 미국 입장에서는 김 부장보다는 최 부위원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대미 협상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 총리도 교체됐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부터 총리직에 있었던 박봉주가 물러나고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 북러정상회담…비핵화·경제협력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방안을 비롯해 북러 경제협력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4월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루키스섬에 소재한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약 100분 동안 단독회담을 했고, 이어서 진행된 확대회담에는 북측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한반도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thorough)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상황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북러 양국 관계의 역사와 현재 양국 관계의 상황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은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데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전통적인 관계를 요구에 맞게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키워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 러, 올 대북 석유 수출 크게 증가



〈러시아가 지난 2009년 시베리아산(産)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극동 나홋카 인근 코즈미노에 건설한 원유선적터미널.(R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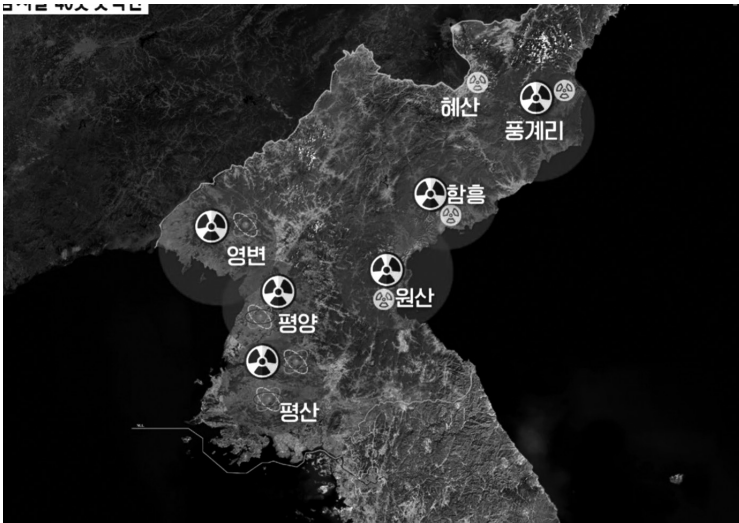
북한전문매체NK 뉴스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수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석유 수출 증가세가 올 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4월 15일 보도했다. 보고된 석유 제품은 모두 정유로 디젤이나 중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576톤까지 떨어졌던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12월 약 7,000톤을 기록했다. 올 1~2월 총 석유 수출량은 약 1만4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0톤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해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전체 정유량 2만9,000톤과 비교해도 두달 만에 이미 지난해 총 석유 수출량의

절반을 채운 셈이다.

2017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연간 정유제품 공급 한도 50만 배럴, 약 6만 3,000톤을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유엔에 보고한 석유 수출량 외 환적 등을 통한 불법 거래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군 당국, 북한 영변 외 추가 핵시설 가동 확인”



〈북핵 주요 시설이 위치한 주요 지역 (KBS 보도)〉

KBS는 3월 28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세한 북핵 리스트를 입수하고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내 핵 관련 시설을 10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목되는 건 이 가운데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할 핵심 시설로 40곳으로 특정했다는 점이다.

핵연구·지휘시설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우라늄 광산 8곳, 원자력발전소와 정련공장이 각각 5곳이었다. 영변 기타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고폭 시험장도 각각 2곳으로 파악됐다.

지리적으로는 서쪽으로는 영변과 평양, 평산에

집중되고 동해안을 따라선 핵 연구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이 산재해 있다.

북핵 주요시설이 최소 40곳에서 많게는 100곳에 이른다는 추측은 많았지만, 정확한 위치와 시설 명칭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뒤 "남북미가 비핵화 개념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핵화 순서 등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은 큰 과제"라고 말해 우리 정부가 파악한 핵심 시설 40곳에 대한 불능화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참고: KBS, 3월 28일)

+ 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관련 ‘자유조선’ 조직원 일부 미 당국에 의해 체포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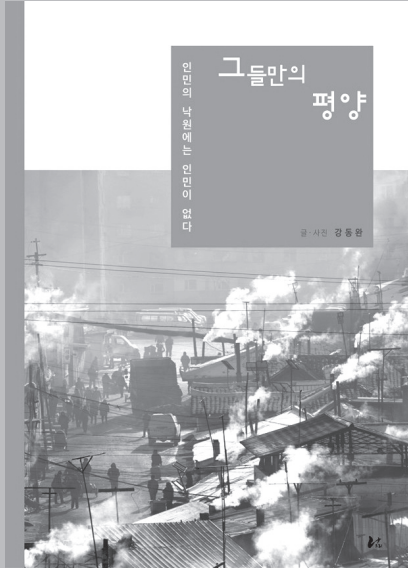
올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과한들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휴대전화를 강탈한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조선'의 멤버인 전직 미국해병대원이 미당국에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4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인물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안'이며 그가 전날 체포돼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연방법원에서 기소인정 여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요원들은 크리스토퍼 안 외에도 '자유조선'의 리더이자 북한 대사관 습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 창이 아파트도 급습했지만 체포에는 실패했다.

스페인 고등법원에 따르면 당시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자유조선' 측은 3월 26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미 FBI 정보공유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월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 정부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묻는 기자에게 "미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조선은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한 단체로, 이달 들어 '천리마민방위'에서 개명했다. 이 단체의 대표는 에어드리언 홍 창이라는 이름의 멕시코 국적 미국 거주자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4년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Liberty in North Korea)를 설립하는 등 북한 인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북한 민주화를 목표로 반북한체제 조직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그들만의 평양
- 인민의 낙원에는 인민이 없다

저자: 강동완

출간일: 2019년 4월 14일

출판사: 너나드리

가격: 29,000원

북한에 대한 글이나 책을 볼 때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그 자료가 쓰여진 시기이다. 북한과 이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가 워낙 변화무쌍 하다보니 몇 년만 차이가 나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가장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얻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정치나 외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나 사회상에 대한 정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강동완 교수의 책 '그들만의 평양'은 매우 생생하다. 이 책은 바로 얼마 전,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북중접경에서 바라본 북녘 사람들의 가을과 겨울을

찍고 그 사진과 기록을 담았다. 특별히 저자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살아가는’ 평양시민이 아닌,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는’ 북한인민들의 억센 일상을 담았다”며 “강 너머 망원렌즈로 보이는 북녘의 모습은 누군가의 의도로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북중접경 지역은 바로 북한인민들의 삶이자 현실 그 자체의 잔상을 품었다. 그들을 사진에라도 담는 건 진실에서 눈 돌리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이자 고백”이라고 이야기한다. 연출되지 않은 현실적인 북한의 모습, 일부 특권층이 아닌 소외되고 잊혀진 평범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단순히 사진뿐 아니라 저자의 감상과 설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사진에서는 100% 느끼기 어려운 북한의 겨울, 영하30도의 추위와 칼바람, 그리고 그 겨울을 살아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진과 함께 저자의 글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다. 저자가 느끼는 북한과 북한 사람, 분단에 대한 아픔과 소망이 글귀에 담겨있다. 최근 외교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외면당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사랑해야 할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남북정상회담 1년이 지난 2019년 4월의 오늘. 세상은 또 다시 시끌시끌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하는데 독재자는 평화의 전령사로 둔갑되어 ‘그들만의 평화’를 노래한다. 모두의 행복이 나래치는 ‘인민의 낙원’이라 선전하지만 정작 인민의 낙원에 인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이상촌에서 극한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 같다. (책 속에서)

북한의 모습을 타국 땅에 가서, 그것도 멀찍이 사진기의 줌을 당겨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곁에 있는 이웃이지만 한 없이 멀기만 한 우리 동포... 이 딜레마는 저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껴야 할,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과제이다. 멀리서 북한을 바라보며 느끼는 저자의 소회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절절하게 공감이 된다.

조국의 반쪽 땅을 압록강 너머 굽어보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의 조국에 발 딛고 강 반대편인 중국땅을 바라볼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은 ‘여기’에 발딛고 ‘저기’를 그려 보지만, 통일된 날에는 ‘저기’에서 ‘여기’를 바라보리라.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저기’일 수밖에 없는 나의 반쪽 조국. (책 속에서)

이 책은 감성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생생한 가장 최근의 북한 지역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북한에 관심있는 사람에서부터 연구 및 관련 전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참고할 귀한 자료로서 이 책을 추천해본다.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간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지 않고 전쟁과 대립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핵이 동결이나 비확산이 아닌 확실한 포기와 폐기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하나님의 인도 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면서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래의 중국은 기독교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추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선교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정책적 변화와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한 문이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많은 장애와 제약들이 있어 북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만큼 여러가지 창의적인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북한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남아있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포들을 위해 복음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가까운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철폐되고 그 안에 수감되어 있거나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된 수 만의 성도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7.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통일을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소망으로 삼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8.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5월 1일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국내 사역자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방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회계 및 프로젝트 담당 (전임)	선교 관련 연구원 (전임 또는 파트)
모집인원	- 0명	- 0명
주요업무	- 일반회계업무 - 선교 관련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집행 관련 실무)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 선교 현장 관련 연구과제 및 관련 사무업무 수행
지원자격	- 회계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 - 영어 업무 가능자 (해외본부 기준에 따른 업무간 영어사용 필수)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및 관련 학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외국계 기업 등 영어사용 업무 환경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사역조건	- 4대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전임: 4대 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파트: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공통사항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공지사항 게시판))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제 7회 **오픈도어** 2019

북한 선교 학교

2019년 **4월 1일** - **7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생명나래교회 본당 (사당역 6번출구 앞)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서부터 국내 통일 선교 사역과 북한 선교 현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이번 선교학교에 뜻이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북한 선교에 소명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1학기 - 북한에 대한 이해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4월 1일	북한 사회와 문화 변화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부산 하나센터장)
4월 8일	북한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아시아연합신대 북한선교대학원 교수)
4월 15일	북한 경제와 장마당 세대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
4월 22일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 실태	이성희 (미래소망스쿨 교감, 전 북한 국어교사)
4월 29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양영식 (전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전 통일부 차관)

2학기 -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5월 13일	탈북 난민과 인권, 그리고 북한 선교	지성호 (NAUH (나우) 대표)
5월 20일	교회에서 준비하는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 목회	하광민 (생명나래교회 담임)
5월 27일	북한 교회 핍박의 현장	박한나 목사
6월 3일	탈북 청소년, 새로운 통일의 세대	김두연 (한공학교 교장)
6월 10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선교	박현석 ((재) 나이스 피플 대표)

3학기 - 북한 선교의 실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NGO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탈북 여성 사역, 북한선교현장의 실태 등 실제적인 북한 선교 사역을 주제로 관련 전문 사역자 강의

※ 선교학교 이후 국내 민통선 기도여행 및 현장 아웃리치 실시 예정

접 수

★ 2학기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 (2학기 1주차)

- 온라인(3월,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및 현장 접수 (강의 1, 2주차)
- 등록비: 학기당 5만원 (사전 등록자 할인)

문 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홈페이지 참조 www.opendoors.or.kr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오픈도어선교회' 검색]